



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비트코인

NOTE 15

DATA
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상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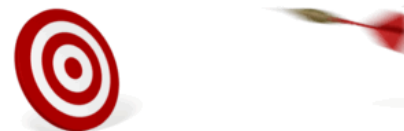
sangjin@koreatech.ac.kr
www.facebook.com/sangjin.kim.koreatech

교육목표

- 비트코인 이전 암호화폐
- 비트코인
 - 한기코인
 - 블록체인의 불가역성
 - 채굴
 - 하드포크 vs. 소프트포크
 - 비트코인 개선
 - 비트코인의 안전성
 - 비트코인의 문제점



<http://goo.gl/DFQFqT>
<http://goo.gl/wEcFyq>



암호화폐

● 명목 화폐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을까?

● 명목 화폐의 중요 특징

● 위조의 어려움

● 휴대가능

● 익명성 보장

● 양도가능

● 분할가능

● 오프라인 지불방식

● 범용 지불

● 명목 화폐: 실질적 가치와 관계 없이 표시된 액면가로 통용되는 화폐



● 오프라인 지불: 제3의 중재자의 참여 없이 지불할 수 있음

● 온라인 지불: 지불에 제3의 중재자의 참여가 항상 필요함 (예: 신용카드)

● 암호화폐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?

● 암호화폐도 중앙은행 또는 중앙은행이 허가한 기관만 발행할 수 있어야 ...

● 암호화폐는 디지털 값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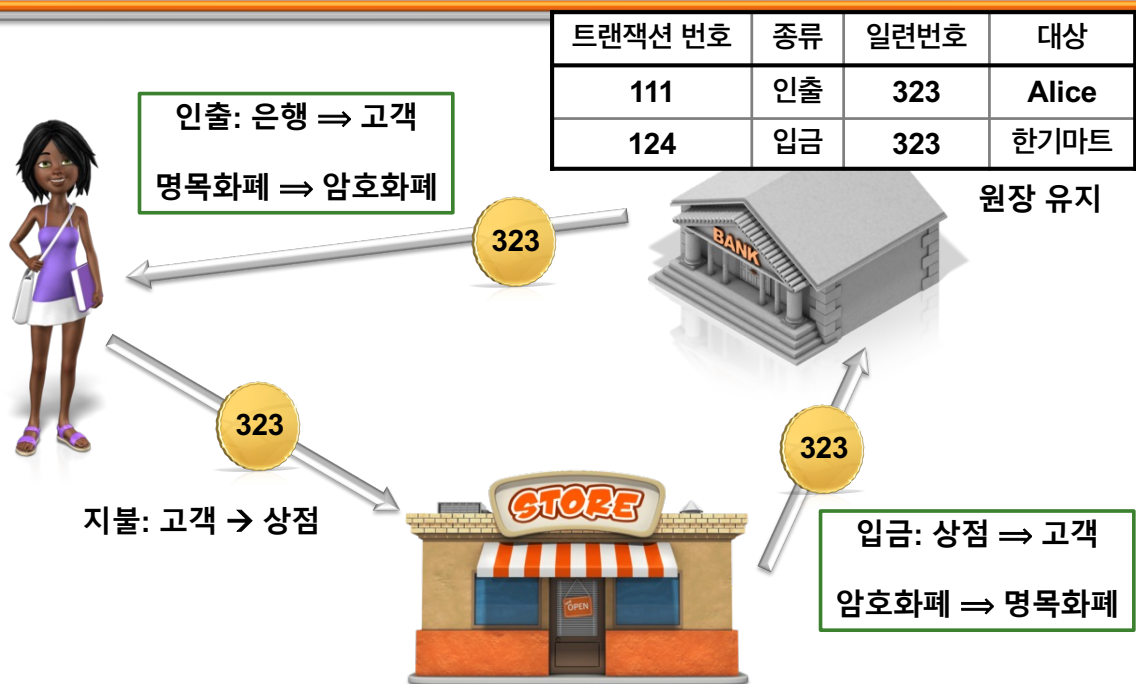
● 지불: Alice가 가진 이 값을 상점에게???

● 화폐는 유통되어야 의미가 있음

● 가상화폐(제도권에서 인정되지 않은 화폐)가 목표가 아님

● 원장에 교환 내역만 정확하게 기록되면 충분

기존 암호화폐의 유통 시나리오



David Chaum, "Blind Signatures for Untraceable Payments,"
Advances in Cryptology, CRYPTO '82, pp. 199–203, 1983.

● 온라인 지불 방식

기존 암호화폐의 특성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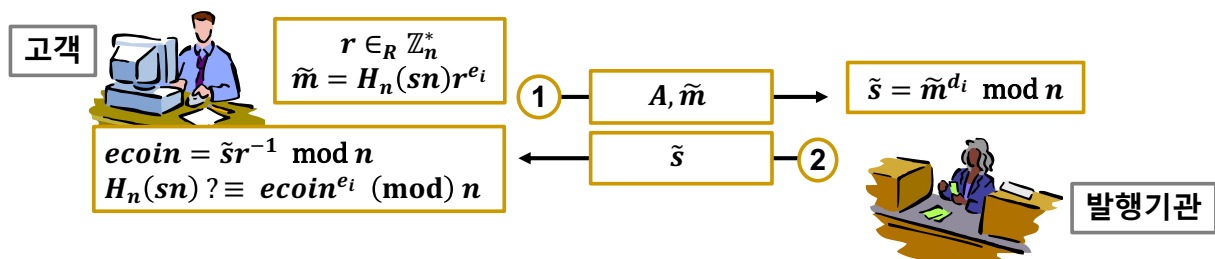
- 온라인 vs. 오프라인
 - 온라인: 지불 과정에 제3의 기관의 참여가 필요함
- 위조 문제: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함. 발행기관 외에는 발급할 수 없음
- 이중 사용(double spending) 문제
 - 디지털화 때문에 생긴 문제
 - 온라인: 승인하기 전에 발행기관이 이중 사용 여부 확인 (일련번호 확인)
 - 오프라인
 - 오직 발급받은 사용자만 사용 가능
 - 차후 입금과정에서 이중 사용이 발견되면 발급자에게 책임
- 보통 거스름의 제공(발행기관만 전자화폐 발급 가능), 양도, 분할 등이 가능하지 않음 (명목화폐의 중요 특성을 만족 못함)
 - 고객과 상점을 명확하게 구분
- 비트코인 이전 암호화폐는 주로 연구 논문으로 발표되었고, 현실 세계에서 유통되지는 못하였음 (why?)

은닉서명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화폐 (1/2)

- 은행: 액면가마다 서로 다른 RSA 공개키 쌍을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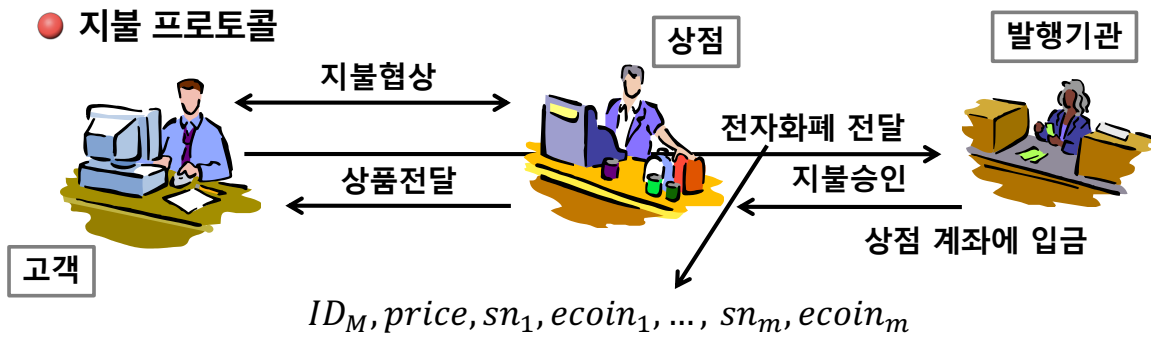
공개키	3	5	7
액면가	50원	100원	500원

- 인출 프로토콜



- 거스름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맞추어 지불해야 함
- 충분한 금액이 있어도 지불하지 못할 수 있음

은닉서명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화폐 (2/2)



- 은닉서명을 통해 위조불가능성 제공
- 은닉서명을 통해 고객의 무조건적 익명성 보장 가능
 - 전자상거래 측면에 지불 과정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
 - 상점의 익명성은 보장하지 않음
- 암호화폐는 안전한 채널을 통해 전달되어야 함
 - 도청을 통해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
- 은행은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이중사용을 방지해야 함

비트코인

- 자체 강화 방식 (탈중앙 방식)
 -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집중 신뢰 기관을 사용하지 않음
- 오프라인 방식?
 - 지불 과정에서 특정 서버의 도움을 받지 않음
 - 하지만 지불 내용을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달하여야 하며, 확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함
- 양도 가능
 - 고객과 상점 간 뿐만 아니라 고객 간에도 화폐를 양도할 수 있음
- 분할 및 통합 가능
 - 하나의 화폐를 여러 화폐로 나눌 수 있으며, 여러 화폐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음 (이 자체도 또 다른 거래, 문제는?)
- 익명 지불 가능
- **첨삭만 가능한 분산 원장**(append-only transaction-based distributed ledger) 사용: 공개 분산 원장 (블록체인)
 - 항상 지불이 가능
 - 하지만 이해 당사자만 참여하는 방식이 아님
 - 고객, 상점을 구분하지 않음

한기코인



-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암호화폐
- 한기코인의 규칙
 - 규칙 1. 총장(S)만 코인을 만들 수 있음
 - 규칙 2. 코인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코인을 양도할 수 있음
 - 규칙 3. 모든 거래는 전체 공개됨 (첨삭만 가능한 원장에 공개한다고 가정)
- 모든 참여자는 공개키 쌍을 가지고 있음

제3자에게 그리고 지불자의 프라이버시만

 -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공개키를 확보해야 함
 - 익명성 때문에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음 (프라이버시 보장???)
 - 총장은 인증서를 사용한다고 가정함
- 화폐를 나타내는 별도 디지털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님
 - 거래를 원장에 기록하며, 이 기록이 화폐 역할을 함
- 한기코인에서 거래는 헤더, 입력, 출력, 서명으로 구성됨
 - 입력과 출력 모두 여러 개일 수 있음
 - 입력의 소유자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함 (꼭 필요한 것은 아님)

한기코인

- 한기코인 거래의 확인

● UTXO(Unspent Transaction Output) 기반

 - 입력 금액의 합이 출력 금액의 합과 같아야 함
 - 생성 거래는 입력이 0임 (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)
 - 입력은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다른 거래의 출력이어야 함
 - 입력 소유자(출력 수취인)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함

T1	H(header in out)
header	type: 생성, #in: 1, #out: 1, size: , ...
in	이전 거래: null
out	금액: 100원, 수취인: H(+K _S)
서명	Sig.-K _S (T1)

여기서 S는 총장

- 코인 생성 거래는 총장의 서명이 필요함
- 이 때문에 총장만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음
- 발행의 수취인이 꼭 총장일 필요는 없음

한기코인

T2	H(header in out)
header	type: 지불, #in: 1, #out: 1, size: , ...
in	이전 거래: T1:0
out	금액: 100원, 수취인: H(+K _A)
서명	Sig.-K _S (T2)

T3	H(header in out)
header	type: 지불 #in: 1, #out: 1, size: , ...
in	이전 거래: T2:0
out	금액: 100원, 수취인: H(+K _B)
서명	Sig.-K _A (T3)

T4	H(header in out)
header	type: 지불, #in: 1, #out: 1, size: , ...
in	이전 거래: T2:0
out	금액: 100원, 수취인: H(+K _C)
서명	Sig.-K _A (T4)

● 100원의 소유가 A로 이전

● 수정 불가?
● 공개

● T2:0 ⇒ 거래2, 0번째 out

● 어디까지 되돌아가면서
확인해야 할까?
● 이전 거래 T2만?

● 이중사용 방지?
● 공개
● 검색 필요
거래 중 in이 T2인
트랜잭션만

한기코인

트랜잭션 번호	IN			OUT			
	NO.	NO.	지불자	금액	수취인	금액	수취인
T1				400	S		
T2				500	S		
T3	T1:0		S	300	A	100	S
T4	T2:0		S	200	B	300	S
T5	T4:0		B	150	A	50	B
T6	T3:0	T5:0	A	400	C	50	A
T7	T3:1	T4:1	S	400	S		
T8	T6:1		A	100	B		invalid
T9	T4:0		B	200	A		double

● 총 생성한 금액은?
● S의 재산은?
● A의 재산은?
● B의 재산은?
● C의 재산은?

● 이 거래 원장은 수정할 수 없어야 함
● 유효하지 않은 거래는 원장에 포함될
수 없어야 함

한기코인

- 발행 문제
 - 총장만 가능, 서명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는 발행할 수 없음
- 거래 내용 변경 문제, 이중 사용 문제
 - 원장에 공개된 내용을 변경(수정, 삭제)할 수 없어야 함
 - 유효하지 않은 코인은 원장에 기록할 수 없어야 함
 - 어떻게 보장?
 - 중앙집중식: 총장이 유효성 검증 후 서명하여 공개?
 - 비트코인은 이것을 탈중앙 방식으로 제공함

비트코인



- 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으로 2008년에 처음 소개됨
- 1 BTC 거래가격

2017. 5. 31	2018. 5. 21	2019. 5. 7	2020. 5. 11	2021. 5. 14
\$2,451	\$8,505	\$5,732	\$8,760	\$50,438
₩3,129,000	₩9,384,000	₩6,654,000	₩10,678,000	₩61,906,000

2022. 5. 6	2023. 5. 19			
\$36,398	\$26,841			
₩47,101,000	₩36,240,000			

● <http://www.coindesk.com/price/>, bitthum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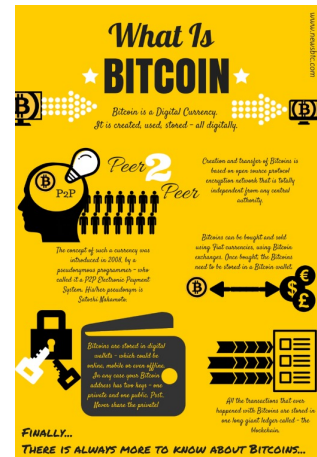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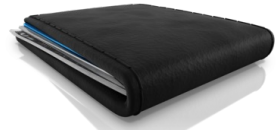
- 지금까지 발행된 비트코인 수: <http://www.blockchain.com/>

2017. 5. 31	2018. 5. 21	2019. 5. 7	2020. 5. 11	2021. 5. 14
16,364,938	17,043,350	17,685,450	18,373,525	18,709,887.5

2022. 5. 6	2023. 5. 19			
19,031,962.5	19,377,375			

비트코인의 일반 참여자

- 일반 참여자는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야 하며, 이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개키 쌍이 필요함
 - 인증서 기반은 아님. (왜? 익명성을 위해)
 - 공개키는 지갑의 주소 역할을 함
 - 누군지 모르더라도 이 주소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코인은 대응되는 개인키 없이는 지불에 사용할 수 없음
 - 한 참여자는 여러 개 쌍(지갑)을 사용할 수 있음
 - **문제점.** 개인키를 분실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해당 키와 연결된 모든 코인을 사용할 수 없음
 - 더 이상 코인 역할을 할 수 없음
- 비트코인 지갑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와 달리 다양한 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
 - 안전성???



● 개인키의 안전한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

● hot (internet 연결) vs. cold

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참여 노드 종류

- 비트코인 네트워크: P2P 네트워크 (모든 노드가 동등 역할을 해야 함)
- 종류
 - **완전 노드(full node)**
 - 최초 블록부터 지금까지 모든 블록에 포함된 정보를 유지해야 함
 - **채굴자**는 완전 노드를 운영해야 함
 - bitcoin.org, bitcoincore.org에서 코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(최신 버전: 23.1, 발표 날짜: 2022. 12. 21)
 - 약 10일 이상 소요 (모든 데이터(**481GB**))를 다운받는 데 걸리는 시간)
 - 완전 노드 운영 동기: 비트코인 건전성에 기여, 투표권 획득 등
 - **부분 노드(lightweight node, partial node)**
 - 본인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유지함
 - 블록 헤더들만 유지



비트코인에서 통신 방식

- 각 사용자는 자신이 생성한 트랜잭션을 전체 네트워크에 전달해야 함
- P2P 네트워크에서 한 메시지를 전체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방법
 -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이와 같은 통신 방법을 flooding이라 함
 - 한 노드가 메시지를 전송하면 그것을 수신한 모든 노드는 다시 전송함
 - 이미 전송한 메시지는 다시 중계하지 않음 (중복 검사)
 - Gossip 프로토콜
 - 단계 1. 한 노드는 주기적으로 일정한 횟수만큼 랜덤한 수(≥ 2)의 수신자를 선택하여 메시지를 전송함
 - 단계 2.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도 단계 1의 과정을 수행함
 - 단계 1에서 수신자를 1명만 선택하여도 $O(\log n)$ 주기가 지나면 n 명에게 도달할 수 있음

비트코인 트랜잭션

- 입력
 - 입력의 합은 출력 합보다 같거나 커야 함
 - 각 입력마다 전자서명 필요
 - 같은 지갑의 UTXO를 사용하더라도 별도 서명 필요
- 출력
 - 출력의 대상이 지불자와 같게 하여 거스름을 구현함
 - 입력과 출력의 차액은 수수료가 됨
 - 수수료는 지불자가 결정. 수수료가 높을수록 거래가 확정되는 속도가 빠를 수 있음
 - 채굴자의 몫이므로 수수료가 높은 트랜잭션을 블록에 포함하는 것이 채굴자에게 유리함
- 다중 입력, 다중 출력 가능
 - 보통 출력은 수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중

● push (명목화폐) vs. pull (신용카드)
● 코인 소유자만 지불 가능
● 직접 지불자에서 수취인으로 가치가 이동함

탈중앙 암호화폐, Really??? (1/2)



- Satoshi Nakamoto는 천재
- 디지털 세상에서 Alice가 만원을 가지고 있고, 이 중 오천원을 Bob에게 지불하고 싶다. 어떻게?
 - 오천원의 가치를 나타내는 비트 데이터를 Alice의 장치에서 Bob의 장치로 옮긴다. 이것이 기존 전자화폐의 생각 (ㅋㅋㅋ)
 - 실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무엇인가가 옮겨질 필요가 없음
- 유효한 거래 기록을 유지하고, 이 기록을 변경(수정 및 삭제)할 수 없어야 하며,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
 - 비트코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정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전자서명된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공개함
 - 공개를 위해 비트코인에 있는 모든 노드에 트랜잭션을 전달함
 - 각 노드는 수신된 거래의 기본적 유효성(예: 서명 값)을 확인해야 하며, 유효하지 않은 것은 중계하지 않음
 - 이를 통해 각 노드는 발생한 모든 거래 정보를 축적함
 - 완전 노드만 이 역할을 함

탈중앙 암호화폐, Really??? (2/2)

- 전자서명된 트랜잭션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다음 문제를 해결하면 탈중앙 암호화폐가 가능함
 - 화폐 발행 문제.
 - 탈중앙 기법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하며, 규칙에 어긋나게 임의로 발행할 수 없어야 함
 - 거래 위조 문제. (cf. 화폐 위조)
 -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만 지불할 수 있어야 함
 - Alice가 소유한 암호화폐는 Alice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함
 -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함
 - 유효한 거래만 기록되어야 함
 - 이중 사용 문제. 한번 기록된 거래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함
 - 이전 기록에 대한 수정, 삭제 등이 가능하지 않아야 함
 - 원장의 불가역성(immutability)이 보장되어야 함. 동시에 누구나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함
- 블록체인이라는 기술(+전자서명 기술)을 이용하여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함???

용어 정리

- 분산 원장(DL, Distributed Ledger)
 - 불가역성 제공
 - 모든 탈중앙 노드가 같은 데이터를 중복 유지함
 - 노드 간의 신뢰를 가정하지 않음
- 분산 원장의 종류
 - 블록체인
 - 블록 단위로 데이터 기록
 - DAG(Directed Acyclic Graph)
 -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기록
 - 예) Nano, IOTA
- 분산 합의 기술
 - 기록된 데이터의 불가역성,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
 - 규칙, 규칙 준수를 위한 보상 체계(incentive),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체계(disincentive)를 포함

불가역성의 보장 (1/7)

- 트랜잭션은 전자서명되어 전체 네트워크로 전파됨
- 이 트랜잭션들을 모아 블록을 구성하고 블록을 확정함
 -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은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어야 함
 - 기본적으로 수정은 전자서명 때문에 지불자만 가능함
 - 따라서 다음 2가지가 보장되어야 함
 -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을 삭제할 수 없어야 함
 - 유효 트랜잭션들은 블록에 시기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함
- 중앙집중 방식이 아니라 탈중앙 방식으로 불가역성을 제공하고 싶음
- 하지만 우선 무결성 보장 기법부터 검토해 보자
 - 해시함수, MAC, 전자서명
 - 누구든지 무결성을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기술 중 전자서명이 유일한 대안
 - 탈중앙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나?

B	T1	Sig.A(T1)
	T2	Sig.B(T2)
	T3	Sig.D(T3)
	T4	Sig.A(T4)
	T5	Sig.C(T5)

H(B)
MAC.K(B)
Sig.S(B)

불가역성의 보장 (2/7)

- 해시함수
 - 문제점. 누구나 M 을 M' 으로 바꾸고 $H(M')$ 을 계산할 수 있음
- MAC
 - MAC은 키가 있는 사람만 생성할 수 있음
 - 이 사람은 일반 해시함수와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 있음
 - 이 키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음
- 전자서명
 - 해시함수와 달리 서명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해당 사용자의 서명을 생성할 수 있음
 - 누구나 확인키를 가지고 있으면 서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음
 - 문제점
 - 해시함수보다 계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
 - 서명자의 권한이 막강함
 - 서명자는 데이터 삭제할 수 있고, 데이터 포함을 거부할 수 있음

● 탈중앙이 목적이므로 특정 사용자만 서명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음

불가역성의 보장 (3/7)

-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?
 - 각 거래는 전자서명하여 기록
 - 타인의 거래 기록은 지불자의 서명키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정할 수 없음
 - 일정 기간에 발생한 모든 기록을 블록이라는 문서로 통합하고, 이 블록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함
 - 블록의 크기는 1MB로 제한. Why? 전파의 용이성
 - 문제점. 트랜잭션의 크기는 가변적이지만 대략 0.3KB이기 때문에 최대 약 3,000개 정도만 한 블록에 기록 가능
 - 거래 처리 용량이 제한적임
- 그러면 여전히 수정 가능한 것은 아닌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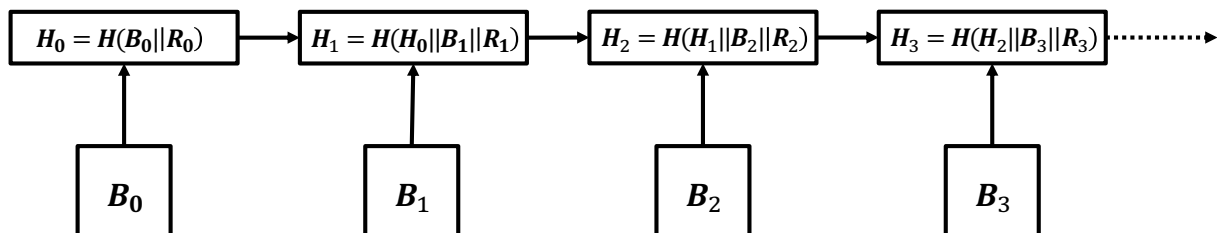
불가역성의 보장 (5/7)



- 암호 퍼즐을 해결하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음.
이 때문에 이를 **채굴(mining)**이라 함
 - 블록에 코인베이스(coin-base) 트랜잭션을 포함
 - 입력 없이 정해진 금액을 채굴자(본인)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트랜잭션
- 10분 정도의 노력을 하면 계산할 수 있다!!!
 - 이 때문에 이를 **작업 증명(proof-of-work)**이라 함
 - 누구나 10분 정도에 퍼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사면 본인의 기록을 수정하고, 타인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 블록을 수정할 수 있음
 - 그러면 불가역성은 어떻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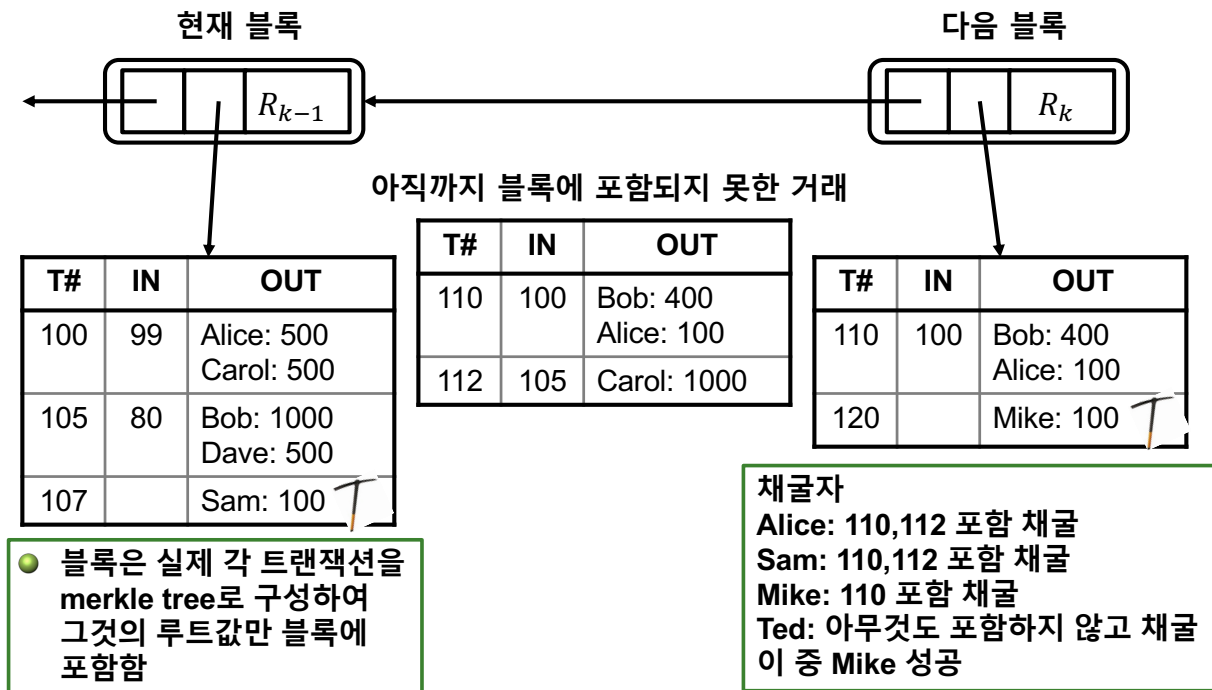
불가역성의 보장 (6/7)

- 불가역성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들을 연결함
 - 블록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할 때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
 - $H_0 = H(B_0||R_0), H_1 = H(H_0||B_1||R_1), \dots, H_k = H(H_{k-1}||B_k||R_k), \dots$
 - 이 체인은 **중단없이 계속 생성되는 성질**을 가지고 있음
 - **중간 체인 값이 바뀌면 그 이후 모든 값이 무효**가 됨
 - 한 블록만 바꾼다고 수정이 가능한 것이 아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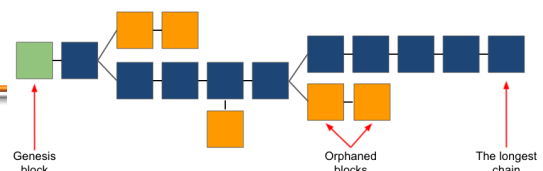
- 블록을 연결하는 해시 퍼즐만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???
 - 포크 문제 \Rightarrow 즉시 확정이 가능하지 않음
 - 끊임없이 생성되어야 함 \Rightarrow 보상 체계

블록체인과 채굴 예시



불가역성의 보장 (7/7)

- 비트코인 암호 퍼즐의 해결은 장비 싸움이지만 확실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연히 두 사람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(일시적 포크 발생)
 -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에서 가장 긴 체인을 우선하는 원칙이 있음
 - 이처럼 암호화폐는 규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
 - 유효 체인에 자신이 생성된 블록이 들어가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
 - 일정 깊이가 되어야 확정됨
 - 여기서 잠깐.
 - 블록 높이: 최초 블록이 0, 그 이후부터 차례로 할당
 - 블록 깊이: 가장 최근 블록이 1이고 최근순으로 할당
 - 블록 깊이가 6보다 커지면 취소될 확률은 거의 없어짐
- 장비 싸움이기 때문에 한 주체가 전세계의 채굴에 사용되는 해시 파워의 51%를 차지하면 이 주체는 마음대로(???) 블록체인을 조작할 수 있게됨
 -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
 - 이 때문에 현 생태계가 건전하다고 함



블록 높이0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 깊이 값 0에서의 블록들

요약	
높이	0 (Main chain)
해시	00000000019d6689c085ae165831e934ff763ae46a2a6c172b3f1b60a8ce26f
이전 차단	00
다음 블록	00000000839a8e6886ab5951d76f411475428afc90947ee320161bbf18eb6048
시각	2009-01-03 18:15:05
난이도	1
Bits	486604799
거래 수	1
출력 합계	50 BTC
예상된 거래량	0 BTC
크기	0.285 KB
번역	1
Merkle Root	4a5e1e4baab89f3a32518a88c31bc87f618f76673e2cc77ab2127b7afdeda33b
해시 난수	2083236893
블록 보상	50 BTC
거래 수수료	0 BTC

● 제네시스 블록(genesis block): 사토시 생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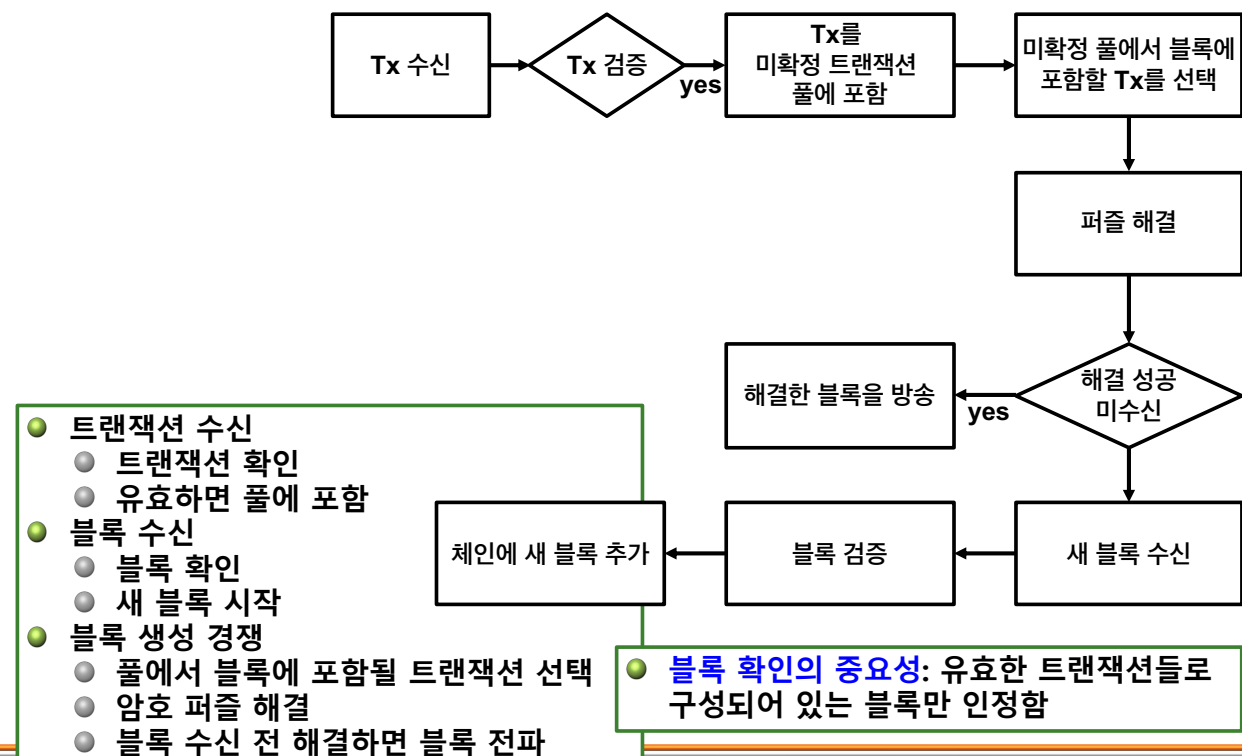
해시	00
확인	8
타임 스탬프	2020-02-06 08:52
신장	616160
갱부	BTC.com
거래 횟수	3,617
어려움	15,466,098,935,554.65
머클 루트	927493767c0c24ab61e30b6fdb306dfbbf67e2d525f3d84ce828b500c88a8839
번역	0x20000000
비트	387,068,671
무게	3,993,441 WU
크기	1,408,110 bytes
목하	1,530,310,505
거래량	2308.96697109 BTC
블록 보상	12.50000000 BTC
수수료 보상	0.08664401 BTC

● 목표값 bits = 387,068,671
 ● 16진법으로 변환 = 171232FF
 ● 17 | 1232FF
 ● $1232FF * 2^{(0x08 * (0x17-0x03))} = 1.74314E+54$
 ● hex
 ● 0000 0000 0000 0000
 ● 0012 32ff 0000 0000
 ● 0000 0000 0000 0000
 ● 0000 0000 0000 0000

트랜잭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부정보 보기

338700ac76836461a636e5743b616bd369828f64aa03364fa4e8de0a745ed562			
17A16QmavnUfCW11DAApiJxp7ARnxN5pGX	→	1bds64Ra2sXrLTG7IEgRptHGhcvtQtdmy 1G7ntfikkX8o4oMhk8sSubFJUMjYwSg9bg 17A16QmavnUfCW11DAApiJxp7ARnxN5pGX	0.07788673 BTC 0.50185238 BTC 45.22520869 BTC
		2 승인 45.8049478 BTC	
요약		입력 및 출력	
크기	291 (bytes)	총 거래량	45.8059478 BTC
무게	1164	총 출력	45.8049478 BTC
수신 시간	2018-12-19 02:03:39	거래 수수료	0.001 BTC
블록에 포함됨	554420 (2018-12-19 02:04:06 + 0 의사록)	1 바이트 당 수수료	343.643 sat/B
승인	2	무게 단위당 요금	85.911 sat/WU
시각화	트리 차트 보기	예상 BTC거래량	0.07788673 BTC
		스크립트	스크립트 보기 & coinbase

채굴자의 역할과 프로세스



채굴(mining)



- 누가 해시값을 계산하나?
 - 비트코인: 아무나, Why? **보상**이 있음
 - 성공적으로 계산한 사람은 새 비트코인과 블록에 포함된 각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얻게 됨
 - 비트코인의 발급 방법
 - 이들을 그래서 **채굴자**라 함
 - 누구도 전 세계 채굴자들의 능력 총합의 50% 이상을 독차지할 수 없어야 함
 - 생태계의 건전성이 중요함
 - **참고**. 채굴 비용: 하드웨어 구축 비용 + 전기세 + 시간 + 시설운영비 + 인건비 + 기타
 - **냉각비용이 중요**
 - 성공확률은 투자 비용에 좌우됨
 - Satoshi가 만든 생태계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진 생태게임
 -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 확신했을까?



채굴 보상(incentive, reward) (1/2)

- 채굴 보상은 보상으로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과 해당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 수수료임
- 현재 비트코인에서 채굴에 성공하면 **6.25 BTC**를 보상으로 받음
 - 2023년 5월 시세(약 **3,500**만원)와 보상 액 6.25 BTC를 고려하면 블록마다 약 **이억천팔백칠십오만원** 정도의 채굴 수입이 발생함
- 채굴자는 자신이 구성한 블록의 첫 번째 트랜잭션으로 보상과 수수료 합을 자신에게 지불하는 트랜잭션을 포함함(coinbase transaction)
- 블록마다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은 일정 주기(약 4년)마다 절반으로 감소함
 - 가장 최근에 감소한 시점은 2020년 5월 12일임 (다음은 2024년 4월 27일)
- 총 발행될 비트코인 수는 21,000,000개이며, 이 중 **92.3%** 이상 이미 발행됨
 - 2032년이 되면 99%가 발행될 예정이며, 2140년이면 발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됨
 - 2032년 이후에는 블록마다 발생하는 것이 1 BTC 이하임

<https://www.bitcoinblockhalf.com/>

채굴 보상 (2/2)

- 트랜잭션 수수료는 트랜잭션 크기에 비례하며, 적정 금액은 시세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음
 - 현재는 1 바이트에 **102 satoshi** 정도임
 - 블록 크기가 1MB이므로 이 계산에 의하면 최대 1.02 BTC)
 - 자신의 트랜잭션이 빨리 포함되도록 수수료를 많이 지급할 수 있음
 - 평균이 0.51 BTC라 하면 현재 시세를 고려하면 2,500만원 정도
 - 채굴을 통한 신규 코인에 의한 보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

2021.5.14	2022. 2. 17
per transaction 26,000 satoshi	per transaction 22,848 satoshi

- 1satoshi = 0.00000001 BTC = **0.3원**
- **22,848 satoshi = 약 7,000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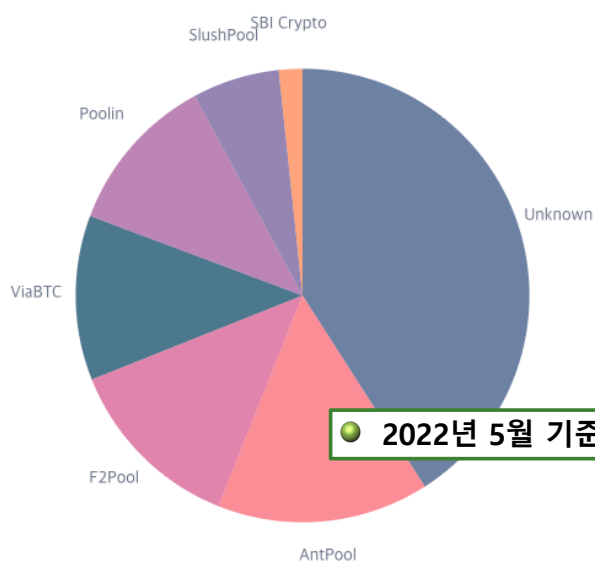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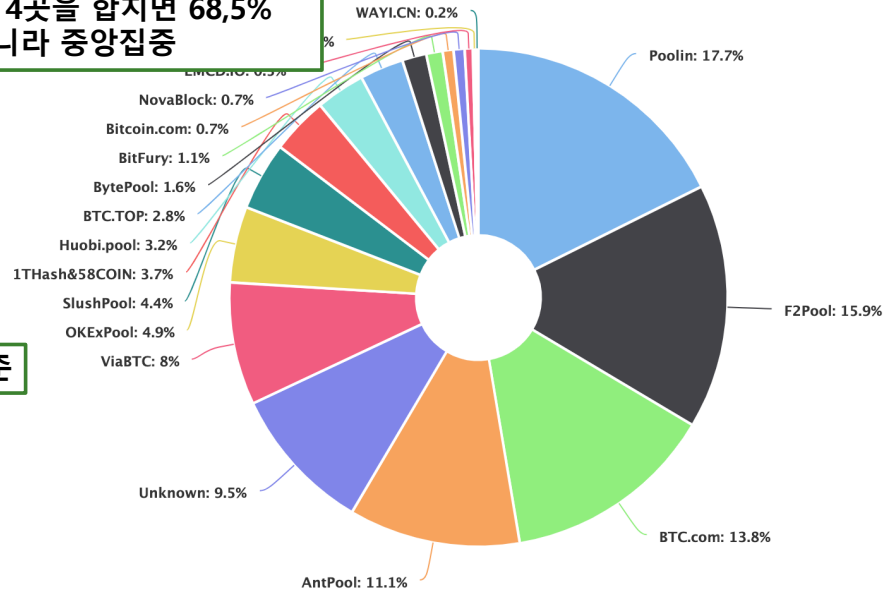
<https://bitcoinfees.earn.com/>

51% 공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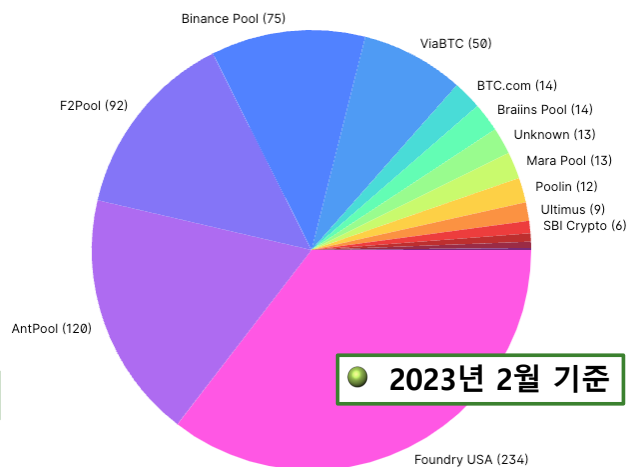
- 한 주체(개인 또는 집단)가 전세계의 채굴에 사용되는 해시 파워의 51%를 차지하여 해당 블록 체인 생태계를 교란하는 공격
- 실제 할 수 있는 일
 - 이중 사용
 - 예) 이전 트랜잭션을 블록에서 제거하고 해당 트랜잭션의 사용된 코인으로 새 트랜잭션을 구성하여 체인에 새롭게 추가
 - 참고. 자신의 비트코인만 이중 사용 가능. 물론 공모는 언제든지
 - 서비스 교란
 - 기존 유효한 트랜잭션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
 - 트랜잭션 거부
 - 시스템 가치 하락 ⇒ 공격한 주체에게 이득이 없음
 - ⇒ 오히려 지금은 채굴을 통해 보상을 얻는 것이 훨씬 유리함
- 현재 해시율 분포: 애초 목표와 달리 중앙 집중화??
 - <https://www.blockchain.com/ko/pools>

- 이미 채굴 보상이 투자 대비 작다고 할 수 있음. 하지만 중단하면 오히려 더 손해 (가치하락 때문)
- 이미 큰손들은 떠날 준비(보유한 코인 판매)를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음
- 상위 3곳을 합치면 57.4%, 4곳을 합치면 68.5%
- 이미 채굴은 분산이 아니라 중앙집중

● 2020년 5월 기준



● 2022년 5월 기준



● 2023년 2월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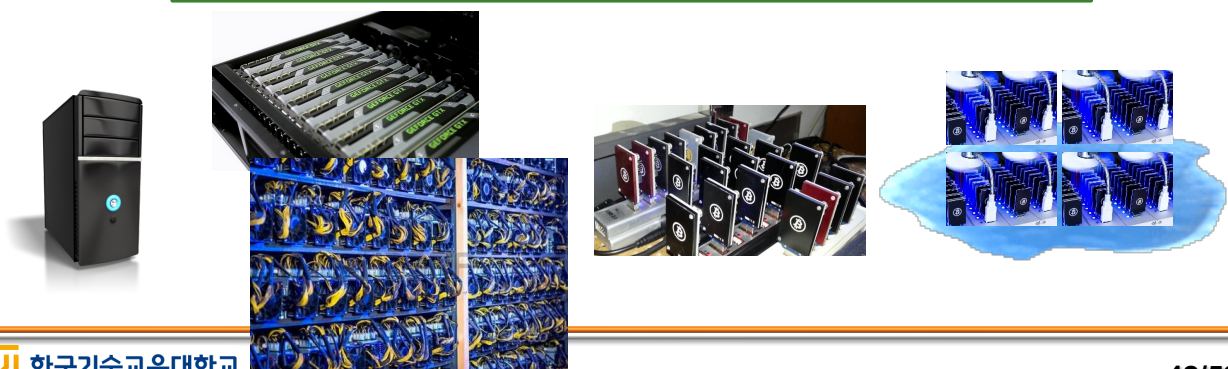
- Bitcoin Gold Hit by Double Spend Attack, Exchanges Lose Millions, <https://www.ccn.com/bitcoin-gold-hit-by-double-spend-attack-exchanges-lose-millions/>
 - 51% 능력을 갖춘 채굴자가 특정 코인을 지불에 사용한 후 체인의 내용을 무효화하여 해당 코인을 지불에 다시 사용함
- Japanese Cryptocurrency Monacoin Hit by Selfish Mining Attack, <https://www.ccn.com/japanese-cryptocurrency-monacoin-hit-by-selfish-mining-attack/>
 - 채굴자가 암호 퍼즐을 해결하였지만 공개하지 않고 계속 채굴한 다음 이것을 일시에 공개하여 기존 블록들을 무효화시키는 공격 (BWA, Block Withstanding Attack)
 - 이기적인 채굴(selfish mining)
-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암호화폐가 PoW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, 전체 채굴자의 해시 파워가 크지 않으면 51% 이상을 확보하여 공격에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



작업 증명(PoW, Proof-of-Work)

-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분산 합의 기술
 - 채굴자가 수행
- 작업 증명의 문제
 - 전기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
 -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
 - 일반 응용에서는 이와 같은 자발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힘들 수 있음
- 지분 증명(PoS, Proof-of-share)과 같은 새 방법이 제안됨

CPU ⇒ GPU ⇒ FPGA ⇒ ASIC ⇒ Cloud Mining/Mining pool



Mining Farm



Mining Device



\$479.95



\$1,987.95



\$499.95



\$49.66

- ASIC에 의한 채굴 집중화
- ASIC 기업(Bitmain)에 의한 채굴 왜곡
- 극복방안. 해시함수의 변경 (이더리움)
- ASIC 기업은 계속 채굴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 개발을 시도하고 있음

<https://www.bitcoinmining.com/bitcoin-mining-hardware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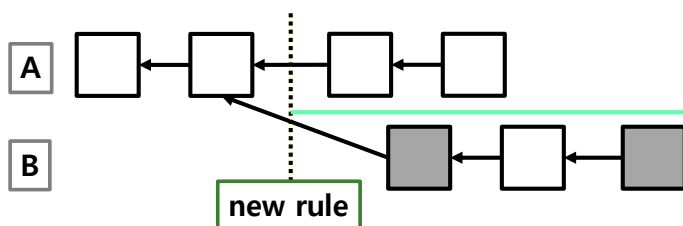
하드포크 vs. 소프트포크 (1/3)

- 비트코인은 P2P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동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화하기 쉽지 않음
 - 의미. 노드마다 사용하는 SW 버전이 다를 수 있음
- 소프트웨어 버전의 변경은 소프트웨어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, 규칙 변경을 위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
 - 트랜잭션 검증 규칙, 블록 구성 규칙 등은 일관성(노드마다 같은 규칙을 사용해야 함)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
- 규칙 변경
 - 경우 1. 과거와 호환되지 않는 규칙의 도입
 - 경우 2. 과거와 호환되는 규칙의 도입
- 경우 1를 하드포크, 경우 2를 소프트포크라 함
- 둘 다 포크되었지만 긴 체인 우선에 의해 한 쪽 체인이 모두 무효화되지 않고, 각 체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
- 규칙 변경에 영향을 주는 집단: 채굴자뿐만 아니라 모든 완전 노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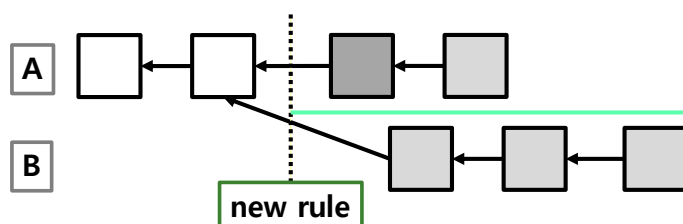
하드포크 vs. 소프트포크 (2/3)

- 하드포크: 규칙 변경이 과거와 호환되지 않음 (새 규칙의 추가 포함)
 - 집단 A: 이전 규칙 사용, 집단 B: 새 규칙 사용 (예: 블록 크기 증가)



- A는 파랑은 인정하지 못함
- A가 규칙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두 체인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음
- A 집단이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음. 기존 이득을 모두 포기해야 함

- 소프트포크: 규칙 변경이 과거와 호환 (기존 규칙의 삭제 포함)
 - 집단 A: 이전 규칙 사용, 집단 B: 새 규칙 사용 (예: 블록 크기 감소)



- A는 모두 인정, B는 녹색을 인정하지 못함
- 하드포크와 달리 A는 B 쪽 체인으로 넘어가는 것에 문제가 없음. → 긴 체인 우선 원칙에 따라 쉽게 하나로 통일 가능 → 통일되기 위해 B 집단이 다수가 되어야 함

하드포크 vs. 소프트포크 (3/3)

- 하드포크의 종류
 - 계획된 하드 포크(planned hard fork)
 - 논쟁 하드 포크(contentious hard fork)
-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음
 - 채굴자 주도(MAHF) vs. 사용자 주도(UAHF): A(Activated)
 - 채굴자 주도가 가장 확실
 - 완전 노드들도 동의해야 포크가 더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
- 포크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기술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불가역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

● 암호화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보통 오픈 소스 형태임
● 이 소스를 일부 수정하여 새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고, 이 경우에도 포크하였다고 함
예) Litecoin은 비트코인에서 포크한 암호화폐임

비트코인의 개선 - 세그윗

- 세그윗(segwit)
 - 비트코인 블록의 크기는 1MB로 제한됨
 - 이 블록은 트랜잭션의 내용으로 구성됨
 - 트랜잭션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전자서명 값임
 - 세그윗은 “segregation of witness”의 약어로 트랜잭션 내부 내용 중 전자서명 부분을 분리함
 - 블록 크기 1MB에서 분리함으로써 더 많은 트랜잭션을 블록에 포함할 수 있음
 - 소프트 포크로 도입함 (2017)
 - 전체 트랜잭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랜잭션의 ID를 바꿀 수 있는 보안 허점도 세그윗을 통해 극복함
 - 더 이상 트랜잭션 ID를 서명에 포함하지 않음
 - 서명도 별도 해시 트리로 구성하여 coinbase 트랜잭션에 포함함
 - SegWit2x의 하드 포크 도입에 대한 시도도 있었음 (2017)

2계층 블록 체인 기술

- 블록 체인의 확장성 문제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 체인에 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을 **2계층(layer 2)** 블록체인 기술이라 함
 - 확장성을 위한 오프체인 해결책
- **지불 채널(payment channel)**
 - **기본 생각.** A와 B가 여러 차례 거래를 해야 할 경우 모든 거래 내용을 블록 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기록함
 - 수수료 절약
 - 트랜잭션 처리 속도 향상
 - 소액 지불에 적합

지불 채널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

- 다중 서명 지갑
 - 보통 비트 코인 지갑은 하나의 공개키 쌍과 연결되어 있음
 - 다중 서명 지갑은 여러 개의 공개키를 하나의 지갑과 임계 기반 형태로 연결할 수 있음
 - 예) 2-3 multisig 지갑: 지불자, 판매자, 중재자 (3개 중 2개의 서명 필요)
 - 예) 2-3 multisig 지갑: 2개의 키와 백업 키
 - 여러 개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지갑 주소를 만듦
- 시간 잠금: 일정 시간이 지나야 트랜잭션 또는 트랜잭션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
 - 시간: 실제 시간 또는 블록 높이
 - 절대 시간, 상대적 시간 개념 모두 가능

- CLTV(CheckLockTimeVerify)
- CSV(CheckSequenceVerify)

	절대	상대
트랜잭션 수준	nLockTime	nSequence
UTXO 수준	CLTV	CSV

- 트랜잭션 수준: 트랜잭션의 블록 등록을 지연
- UTXO 수준: UTXO의 사용을 지연

지불 채널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

- 예) TX_2 는 TX_1 의 UTXO를 사용하는 트랜잭션
 - TX_2 입력의 nSequence = 10 blocks
 - TX_2 는 TX_1 이 등록된 이후 10개 블록이 지나야 블록 체인에 등록할 수 있음
- CLTV/CSV 잠금은 잠금이 해제되기 전에 유효한 트랜잭션이 등록되면 이중 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
- 해시 시간 잠금 (HTLC, Hash Time Locked Contracts)
 - 지불을 처리하기 위한 조건을 트랜잭션에 포함
 - 트랜잭션에 $H(x)$ 를 포함하면 x 가 없으면 이 트랜잭션은 유효한 트랜잭션이 되지 못함
 - 만료 시간이 함께 연결되어, 만료 시간 전에 x 가 공개되어 트랜잭션이 처리되지 않으면 트랜잭션은 무조건 무효화됨

지불 채널 (1/3)

- 양방향 지불 채널
 - 채널 개설. A와 B는 일정한 금액을 2-2 다중 서명 지갑에 예치함. 이 트랜잭션은 블록 체인에 기록함
 - 개설 이후 한 사용자가 부당하게 채널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트랜잭션(패널티 트랜잭션)을 교환한 후에 개설을 완료함
 - 이 트랜잭션은 적절한 잠금 장치(CLTV)를 설정하여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
 - 채널 종료. A와 B는 언제든지 닫을 수 있음. 채널을 닫으면 최종 트랜잭션이 블록 체인에 기록됨

- 패널티 트랜잭션을 생성할 때 nLockTime, CLTV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음
 - 트랜잭션: nLockTime:24hours, 입력: 다중지갑 100, 출력: A 100
 - 트랜잭션: nLockTime:0, 입력: 다중지갑 100, 출력: A 100(CLTV: 24hours)
- nLockTime는 트랜잭션 가단성(malleability)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CLTV를 사용함
- 트랜잭션 가단성 공격이란 유효한 동일 트랜잭션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공격. (트랜잭션 내용은 동일하고 유효하지만 위치나 값을 약간 바꾼 경우 해시값이 달라지며, 결과 서명 값도 달라짐)

지불 채널 (2/3)

- 예) B는 스트림 서비스 제공, A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음
 - 시청 시간에 따라 서비스 금액을 지급해야 함
 - 지불 채널 개설 (2-2 multisig 지갑 개설)
 - A는 이 지갑에 100satoshi 예치
 - B는 100satoshi를 A에게 지급하는 패널티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전달함
 - CLTV 설정
 - A는 시청할 때마다 1satoshi를 B에게 지급하는 트랜잭션을 생성
 - Tx1: 1satoshi \Rightarrow B, 99satoshi \Rightarrow A (A가 서명하여 생성한 Tx)
 - Tx2: 2satoshi \Rightarrow B, 98satoshi \Rightarrow A
 - B는 수신한 트랜잭션에 서명하여 언제든지 채널을 닫을 수 있음
 - 닫으면 패널티 트랜잭션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됨
 - B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닫지 않으면 A는 자신이 되돌려 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지 못함
 - A는 패널티 트랜잭션을 서명하여 최초 예치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음

- 미미는 티빙을 시청하고자 함
- 티빙은 드라마 1편에 1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받음

- 2-2지갑 (미미, 티빙) 생성: 시청지갑
- 이 지갑은 미미와 티빙이 모두 서명해야 사용 가능

- 미미는 1,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시청지갑에 지불함

- 미미는 드라마를 보기 전에 100원 티빙에게 지급하는 트랜잭션을 생성함
- 출력: 100원 티빙, 850원 미미 (미미 서명)

- 미미가 마지막 생성한 트랜잭션은
- 출력: 500원 티빙, 450원 미미 (미미 서명)

- 티빙은 마지막 트랜잭션을 닫아야 이득임. 이전 트랜잭션을 닫으면 오히려 손해

- 티빙이 어떤 거래도 닫지 않으면 미미는 손해임
- 최초로 티빙은 패널티 트랜잭션을 만들어 미미에게 주어야 함
- 출력: 1000원 미미

- 미미가 패널티 트랜잭션을 먼저 블록에 등록하면 티빙은 손해임
- 패널티 트랜잭션에 잠금 장치를 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야 블록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

지불 채널 (3/3)

- 사용자 A가 여러 사용자와 소액 거래를 하고 싶으면 각 사용자와 지불 채널을 개설해야 함 \Rightarrow 번거로움
- 개선 방안. 지불 채널 네트워크(PCN, Payment Channel Network)
 - 예) Lightning network
- $A \Rightarrow B, B \Rightarrow C, C \Rightarrow D$ 채널이 개설되어 있으면 A는 B와 C를 통해 D에게 지불할 수 있음
 - 네트워크 자체에서 필요한 경로 설정을 해줌
- HLTC의 사용이 필요함
 - A가 B를 통해 C에게 1BTC를 지급하고 싶음. B는 중계를 하지 않을 수 있음
 - A가 C로부터 $H(x)$ 를 받아 B에게 1BTC를 주는 트랜잭션의 HLTC로 설정함
 - B는 HLTC $H(x)$ 를 포함한 C에게 1BTC를 주는 트랜잭션을 생성함
 - C는 x 를 제시하여 트랜잭션을 유효하게 만듦. B도 x 를 사용함

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특성

- 10분마다 계속 생성됨. 누군가 계속 생성해 주어야 함
- 침삭만 가능
 - 특정 블록을 수정하기 위해 암호 퍼즐을 계산하여도 해당 블록 이후 모든 블록의 암호 퍼즐을 새롭게 계산하여야 하며, 계속 생성되고 있는 기존 체인보다 더 긴 체인을 만들어야 함
 - 단점이 될 수 있음. 기록을 영구히 삭제할 수 없음
 - 블록체인은 aging 기능이 없음
- 분산 저장되어 있음
 - 분산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다 바꾸기 힘들
 - 이 때문에 다른 말로 분산 원장(distributed ledger)이라 함
- 공개형 블록체인. 누구나 접근 가능함
- 블록에 기록을 포함하는 권한은 블록을 생성하는 주체의 마음
- 체인 순서에 의해 각 블록이 생성된 시점에 대한 상대적 시간을 알 수 있음
- 오픈 소스로 운영됨 (신뢰성이 높음)

● 건전해야 가치가 유지 또는 상승

비트코인의 안전성

- **가정.** 비트코인 SW는 안전함
- **비트코인의 발행**
 - 채굴을 통해서만 새 코인을 만들 수 있음
 - 채굴 방식 때문에 특정 참여자나 기관이 손쉽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만들 수 없음
- **기존 거래 내역의 수정**
 - 해당 거래 내역을 수정하고, 그 내역이 포함된 블록을 새롭게 채굴해야 함
 - 해당 블록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모든 블록을 다시 채굴해야 함
 - 블록은 10분마다 계속 채굴되며, 긴 체인이 우선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의 수정은 가능하지 않음
 - 매우 강력한 채굴자(전 세계의 해시 파워의 50% 이상을 차지)가 등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생태계를 고려하였을 때 현실성이 없음
- **코인 가로채기:** 해당 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키가 필요함

비트코인의 문제점

- **화폐 기능**
 - 가격의 불예측성
 - **거래 확정 속도**
 - 불법 거래 사용
- **코인 거래소 등장**
 -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
 - 중재자의 등장
- **채굴의 중앙 집중화:** 채굴자와 일반 사용자가 명백하게 구분됨
 - 현재는 일반 사용자도 없고 투자자만
- **채굴방법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 파괴**
 - PoW \Rightarrow PoS
- **확장성 문제**
 - 세그윗, 지분 채널, sharding 등 다양한 확장 방안이 도입되거나 검토되고 있음

비트코인의 문제점

- 블록크기의 제한과 블록 생성 속도
 - 블록 크기의 제한은 전파 속도 때문에
 - 생성 속도는 안전성 때문에
 - 용도를 고려하여 크기와 난이도를 잘 조절하여야 함
 -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캐시로 갈라짐 (2017년 8월)
 - 2017년 10월에는 비트코인 골드로 또 갈라짐
 - ASIC 사용한 채굴을 못하기 위해 PoW 방식 변경
 - 비트코인캐시는 다시 Bitcoin SV로 갈라짐 (2018. 11)

